

밀과 보리의 땅

5/1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신 8:8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 14:19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막 6:2-3

2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크게 놀라서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의 일이 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인 그 목수가 아닙니까?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니,

눅 2:40, 52

40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 가셨다.

요 6:57a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신명기 8 장 8 절에서 주님은 보리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밀을 맨 앞에 두셨다. 밀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방면을 나타내는가? 요한복음 12 장 24 절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죽고 장사되시기 위해 땅에 떨어지신 한 알의 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고 장사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심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밀이다. 밀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장사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밀의 체험을 생각해 보자. ...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으로 제한받는 상황 곧 억눌리는 상황에 두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밀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제한받고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과 같으시다. 그분을 접촉하는 즉시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처한 제한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인 이 생명은 한 알의 밀이다. 이 생명은 작은 목수, 육체를 입으신 분, 제한받으신 분의 생명이다. 여러분이 제한받고 억눌리는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접촉했을 때, 여러분은 “오, 주님!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종류의 제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밀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아주 훌륭하고 영적인 한 자매가 나를 만나러 왔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자매는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형제와 결혼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상냥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전혀 달랐다. 이 젊은 자매는 내게 찾아와서 자신의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교통을 요청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로 인해 날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털어놓았다. 그 자매는 주님께 가서 그분께서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구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자매는 주님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시도록 감히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구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이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즉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 주기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이 삼십 년 이상이나 그 작은 가정에서 한 사람의 목수로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으셨는지를 보여 주셨다. 이러한 이상을 보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당신께 아무것도 바꾸어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체험이 올바른 체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체험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자매는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영적인 자매였다.

얼마 후 그 자매가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주는 제한에 만족할 뿐 아니라, 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계시하셨을 때, 저는 이런 가정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 가정 안에서 죽고 장사되겠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더 전진된 체험이었다.

여러 환경 가운데 주 예수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마치 한 알의 밀과 같으시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께서 한 알의 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제한받고, 기꺼이 죽고, 기꺼이 장사되고,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이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77-7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5/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14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눅 12:50

50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 7:6,10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으시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빌 4:11-13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되셔서, 그분께서 입으신 육체 안에서 억압받으셨다.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시고 신성하신 분께서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시기 위해, 그분은 육체의 죽음을 겪으심으로 침례 받으셔야 했다.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된 후에,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의 충격력이 되었다.(눅 12:50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2 장 24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한 알의 밀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 ... 밀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비록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어느 날 육체가 되시어 제한 받으셨다. 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의 한 작은 목수이신 예수님 안에 제한받으셨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사셨고 심지어 시간에 제한받으셨다. 그분의 육신의 동생들이 유대로 가시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요 7:6)라고 말씀하셨다. ... 주 예수님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도 제한받으셨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삼십 년 동안 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밀은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는 제한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은 하나의 제한이자 속박이다. ... 오늘은 여러분이 새처럼 자유롭겠지만, 결혼 후에는 자신이 새장 안에 갇혔음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가두는 새장이고, 모든 남편은 아내를 가두는 새장이다. 결혼 전에 나는 밤의 신선한 공기를 좋아해서 침실의 창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모든 창문을 닫고 침실을 새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혼이나 별거가 없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는 새장에서 도망칠 수 없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새장 안에 작은 새들이 태어난다. 이것은 얼마나 더 큰 속박인지!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태어날수록 나는 더 많은 제한을 체험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오, 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냥 그대로 제한받고 억압받아라. 나를 보아라. 나는 무한한 하나님이지만 육체가 되어 삼십 년간 제한받았다. 나는 삼십 년이 지난 뒤에는 네가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삼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은 삼십 년이 지나면 제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제한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을 뿐 아니라 며느리들과 사위들도 있으며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저는 또한 수많은 교회들과

장로들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다시 보아라. 비록 나는 삼십 년 만에 해방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결국 나는 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분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가 되어 계신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안에서 제한받으시고, 우리라는 새장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제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을 때, 나는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주님, 저의 아내와 모든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장로들로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가두는 새장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밀이 즉시 자라기 시작한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밀밭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사위들과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과 교회들과 장로들로 인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이 모든 이들 덕분에 내가 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이 밀은 우리의 제한 가운데 자라고 계시는 육체 되신 예수님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1권, 성경의 핵심, 6장, 317-3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1권, 성경의 핵심, 6장

5/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2:23-24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3:5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 7:38-39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4:11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벧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부활하시는 것, 곧 부활 안에서 많은 믿는 이를 산출하시기 위하여(벧전 1:3)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을 인성의 껍질

안에서부터 해방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즉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요 12:24)이 땅에 떨어져 땅에서 자라날 때 그 생명 요소를 해방하는 것과 같다.(요 12:23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제한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귀결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제한할 뿐 아니라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외 없이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만일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밀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자란다. 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길은 제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기꺼이 제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먹을 밀이 전혀 없으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밀을 먹음지에 관하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밀을 먹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밀이 자라게 해야 한다. 밀이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제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한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바울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고후 4:11 상)라고 말했다. 날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죽음에 넘긴다. 여러분의 신혼기가 매우 달콤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꿀 같은 신혼기(honeymoon)가 종종 ‘식초 같은 신혼기(vinegar-moon)’가 되는 것 같다. ... 신혼기의 처음 며칠간 여러분은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나면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넣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나의 아내는 수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왔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한 번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며칠 뒤에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받으신 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밀로서 자라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1권, 성경의 핵심, 6장, 320-321 쪽)

신약은 믿는 이들의 상징 중 하나로 생명의 밀을 사용한다. 마태복음 3 장 12 절은 주 예수님께서 쭉정이에서 밀의 알곡을 분리하여 곳간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어, 밀의 알곡은 곳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밀의 알곡으로 상징된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자녀들이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성령 안에 침례 주실 것이고(마 3:11), 휴거를 통해 그들을 하늘에 있는 그분의 곳간으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물을 통하여 그 영 안으로 침례 받아야 한다. 우리는 물과 그 영으로 날 필요가 있다(요 3:5). 먼저 우리는 물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다음으로 그 영 안에서 침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생명의 밀로 상징된 믿는 이들이 되어 장래 주님의 곳간으로 모아질 것이다. 쭉정이로 상징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13 장 24 절부터 30 절까지에 있는 가라지들처럼 생명이 없다. 주님은 그들을 불 못에 넣으심으로써 불속에 침례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 장 12 절에 있는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마태복음 13 장에 있는 가라지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 둘 모두의 영원한 운명은 동일하다. 즉, 불 못에서 멸망할 것이다(마 13:40-42).

참된 밀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이 최악되고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그 분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밀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07, 127-128, 1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07

5/1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6:9-10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시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 앉은 사람은 남자만 오천 명가량이었다.

요 6:48

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고전 15:20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엡 1:20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밀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죽음과 장사를 가리키고, 다음에 나오는 보리는 그분의 부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 보리는 항상 제일 먼저 익는다. 모든 곡식 중에서 보리가 첫 번째이다. 레위기 23 장 10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추수 때가 되면 수확물 중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져야 했는데, 그 첫 열매는 분명히 보리였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 장 20 절을 읽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성경 연구가는 수확물 중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보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밀과 보리는 그리스도의 두 방면,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 두 방면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밀이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보리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 ... 여러분은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또한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 밀이고 어떤 체험이 보리인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실 때, 그분은 보리로 만든 다섯 개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 그것이 밀떡이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로 만든 떡이 아닌 보리떡이었다. 보리떡으로 오천 명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 이것이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실 수 있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은 극도로 제한받으셨지만,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매우 풍성하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제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단 하나의 밀알이셨고, 한 작은 나사렛 사람이셨으며, 한 비천한 목수이셨다. 그러나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 되셨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다. 다섯 개의 떡이 있었지만 사실상 셀 수 없는 떡이 있었던 것이다. 여자와 아이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도 오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했으며, 남은 것만도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여 처음에 있던 떡 다섯 개보다 더 많았다. 이것이 보리이다. 이것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부활 안의 그리스도는 결코 제한되실 수 없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76-77 쪽)

보리이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 요한복음 6 장을 볼 때, 그리스도는 다섯 개의 보리떡으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다(9-10 절).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떡에서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보리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면으로 우리는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또 한 면으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장로들을 짊어질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매들은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짊어질 수 있다. 모든 남편들로 인해 아내들은 힘든 시기를 겪는다. 자매들이여, 천사와 결혼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모든 남편은 골칫거리이다.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동정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아내들은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받으신 예수님과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를 배우라. 나는 내게 밀과 보리 둘 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증언할 수 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밀과 보리의 풍성이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 년, 1 권, 성경의 핵심, 6 장, 3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5/17 금요일

아침의 누림

히 13:12-13

12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히 11:26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롬 15:3

3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제게 쏟아지나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고후 12:10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 6:9, 13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3 그래서 제자들이 모았더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을 찬양하자. 밀 다음에는 보리가 있다. 무덤은 주님의 마지막이 아니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 밀은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보리는 부활의 산이다. 여러분이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보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뒤따를 것임을 확신하라.

사실상 밀알이신 그리스도 곧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보리이신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장사되심을 통과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그분 자신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제한받으셨지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해방되셨다. 우리 안에 사시는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날 우리는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한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79-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다. 여러분은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가, 아니면 제한받으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한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육체에 의해, 그분의 가족에 의해, 육신의 어머니에 의해, 심지어 육신의 동생들에 의해 항상 제한받으셨다. 그분은 항상 제한받으셨다. 공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으셨고, 시간에 의해서도 제한받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에 제한받으셨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제한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해방이나 자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우리가 제한받도록 하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참으로 거대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화를 내기는 쉽다. 그러나 인내하려면 능력이 요구된다. 성질을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오래 참으려면 하늘에 속한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주님의 부활 능력이다. 나는 아주 약간의 인내를 얻기 위해 강화되는 데에도 내 안에 살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내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형제님, 저는 제가 항상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와 상관과 형제들과 특별히 어떤 한 형제에 의해 제한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에도 제한받습니다. 온종일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라면 내일과 모레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게는 그분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심지어 떡 다섯 개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떡 하나뿐일지라도, 그것이 보리떡 즉 결코 제한되실 수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 조금으로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여러분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 즉 보리이신 그분께서 계신다. 하나의 보리떡이 여러분 안에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 주님을 그 상황에 적용하라. 그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육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한받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다.

때때로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일어서서 간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천 명을 먹여야 하지만 공급할 것이라고는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가진 몫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고 필요는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어떤 한계도 모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적용하라!(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80-8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6 장

5/1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 14:14-21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곳은 외딴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16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시자,

17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라고 하였다.

18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하시고,
19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20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고,
21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가량이었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그리스도께서 보리로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그 형제와 교통하면서 주님을 적용해야 한다. 때때로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여러분은 형제를 만날 때, ... 세계정세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그가 떠날 때 여러분은 배고픔을 느끼며, ...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병든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를 적용할 기회로 붙잡아야 한다. ... 그러면 여러분이 집회에 올 때 찬양을 하거나 간증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릴 많은 보리떡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젊은 동역자들은 집회에 올 때 앞선 형제님들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둘러본다. 만일 그들이 안 보이고 또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믿는 이들뿐이라면, 그들은 담대히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나 그 집회에 몇몇 앞선 형제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겁먹고 움츠러든다. ... 만일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에게도 계십니다. 형제님에게 오백 개의 떡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최소한 한 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분은 보리떡, 즉 부활하신 분이시다. 어떤 것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82-8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형제자매들과 함께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집회에서 여러분의 몫을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약하지 않다. 여러분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보리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은 기도나 간증을 통해 보리이신 그분을 적용함으로 다른 이들을 먹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 여러분은 풍성해질 것이다. 결코 집회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라. ...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이 소유한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마 14:16)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6:9)라고 말했다. ...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이라면, 즉 그들에게 있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떡은 그상황의 필요를 채우고도 여분이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처음 여러분에게 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보리이다. 이것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저는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 자매는 또 하나의 체험을 간증했다. 이번에는 보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자매는 시어머니와 많은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간증했다. 그 자매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보리떡이 되었던 것이다. 그 자매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여러분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로 알 뿐 아니라,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고 보리떡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된다. 여러분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5 장, 83-8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7 장

5/19 주일

아침의 누림

고전 15:42-45, 47-49, 53-54

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뿌려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44 혼적인 몸으로 뿌려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혼적인 몸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48 땅에 속한 그 사람이 어떠하듯 땅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며,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어떠하시듯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49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53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송: 1168 (英)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1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 그리-스도 것 주님 자신의 일이니 다 이기리로다 많-은 밭 자라나려면 땅- 속에 묻혀야 하리 옛 것이 썩-어-야만이 새 생명 많-이- 자라사 자아에서 죄-에서 해-방-돼.

2 고난을 통해 주님은 보좌로- 가셨네 지금도 동일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고-난을 통해 우리도 왕-국에 참여하리라 죽음과 사-탄- 이긴 주 신실한 이-들- 인도해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3 고뇌와 죽음 통하여 길 여신- 구주여 살아 있는 영의 숨을 더 주시-옵소서 주- 자녀 주께 이끌게 전-달자 각지에 보내 주 이름으-로- 구원해 그들을 해-방-하소서 우리 자신 주-께 헌신-하니.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13)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5:1-6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22-23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Knowing God's Ways*

Scripture: Heb. 3:7-4:11

Assigned Reading: *CWWN*, vol. 46, "Conferences, Messages, and Fellowship (6): Miscellaneous Messages and Fellowship," ch. 186; *CWWN*, vol. 58, "Spiritual Judgment and Examples of Judgment," ch. 26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1. What are God's ways?
2. Are God's acts the same as God's ways? If they are not the same, how might they differ?
3. Which ways of God did the children of Israel not know?
4. Which ways of God have you come to know in your Christian life?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권, 믿는 이들,
메시지 107